나의 자랑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 누군가는 돈을 좇으며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명예를 좇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주 다양하다. 난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다. 살아가며 많은 것을 쫓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학생 시절의 나는 남들의 시선을 갈망하며 명예를 좇았다. 각종 행사에 앞장서서 참가하고 남들 앞에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학교에서는 응원단 단장으로써 활동했고 학교 밖에서는 성당 학생회장으로 꾀 오랫동안 활동했었다. 많은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듬직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토록 갈망하던 남들의 시선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 학교와 성당은 말 그대로 가시방석이 되어버렸다. 항상 모범을 보여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나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순간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 나를 지지해 주고 기대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내가 그토록 갈망했지만, 나를 옭아맸던 명예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명예가 아닌 근면과 성실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기계조작원으로 취업했는데 항상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으며 상사의 요구를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기만 하면 됐고 나에게 할당된 작업량만 맞춘다면 누구도 내 업무수행 방식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단조로운 일상에 권태를 느끼게 되었고 근면과 성실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 나갈 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만감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소호사무실을 얻고 돈이 될 만한 일은 다 했었다. 중국 공장에서 홈 트레이닝 용품을 대량 발주 넣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도 해봤고, 동대문 의류 시장에서 옷을 가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도 해봤다. 하지만 별다른 개성 없는 상품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거기서 난 단순 근면과 성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과 남들이 다 하는 일을 그저 따라만 하는 것으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일을 계기로 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몰입할 수 있던 취미인 방 탈출 카페를 창업 해 봐야겠다고 판단했다.

창업을 시작하고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자 평균적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은 현장에서 전기 배선이나 용접, 목공 일을 해야 했다. 심하게는 하룻밤을 꼬박 세어가며 페인트칠했던 날도 있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 과정은 절대 힘들지 않았다.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더 컸고 그 고양감은 발목을 잡은 피로감을 뿌리치기엔 충분했다. 처음으로 일을 하며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꼈고 내가 바라던 완벽한 몰입을 경험했다. 그렇게 실패할 리 없다는 착각 속에서 성실과 열정을 앞세워 나아가던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됐다.

이번에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은 세심함 이였다.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며 작성했던 계약서는 모순투성이였고 파고들 수 있는 허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렇게 공사 주도권은 완전하게 빼앗긴 나는 제발 완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상황은 내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즐거웠던 방 탈출 카페 제작 작업은 점점 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결국 난 매장의 지분을 포기했고, 즐거웠던 테마 제작 작업은 상처뿐인 경험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린 일이 없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26살의 나이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던 기회가 왔었다고.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앞으로도 나는 계속 부딪혀 가며 나에 대해 더 알아갈 것이다.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나 자신이다.